

농어촌지역 여성의 胎敎認識과 實踐에 관한 연구

-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

속초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임 희 규

目 次

I. 序 論

1. 研究의 意義와 目的
2. 研究의 問題
3. 研究의 制限點

II. 理論的 背景

1. 胎敎의 定義
2. 胎兒의 성장 발달과 胎敎
3. 胎敎의 內容

III. 研究 方法

1. 조사대상

2. 측정도구

3. 자료처리

IV. 結果 및 論議

1. 胎敎의 일반적 認識度

2. 胎敎의 內容별 認識度와 實踐度

V. 結論 및 提言

參考文獻

英文抄錄

I. 序 論

1. 研究의 意義와 目的

한 생명은 受胎와 더불어 시작된다.

우리先祖들은 孕胎와 동시에 胎兒敎育을 한 경우가 많았다. 생명이 孕胎되는 즉시 人格을 부여하여 자녀敎育의 출발점을 胎敎에 두고 인간의 孕胎 1개월에서부터 인간으로 대접하여 갖 태어난 아기를 1세라 하였다.

受精된 受精卵의 무게는 대체로 0.6mmg 으로서 新生兒 무게를 3250g이라 하면 母體 내에서 약 540만배로 성장하는 것이 되고 길이는 0.2mm이던 것이 태어날때 500mm라 하면 약 2450배로 성장하는 것이 된다(申燕植, 1978, 290-291)

성장과 발달은 크기에 있어서의 성장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成熟을 뜻하고 성장과 정이란 계속적인 변화와 단계들로 이루어지는 成熟의 進展을 말하는 것이다(金仁模,

1982, 15).

눈에 보이지 않는 母體내에서의 10개월은 하나의 생명이 제모양을 갖추는 놀라운 성장발달을 하는 기간으로서 生後의 발육시기보다 더욱 중요한 기간이라 볼 수 있다.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時期일수록 環境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發達段階에 맞는 敎育이 요구된다.

인간 形成의 최종과정인 胎兒의 성장발육을 돕는 胎敎의 실행은 敎育에 있어서 우선 먼저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즉 胎敎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再認識 하는 것이 幼兒敎育의 첫 걸음인 것이며, 이는 올바른 자녀의 出產과 건강한 자녀의 養育에 있어서의 기본바탕이라 볼 수 있다.

본 研究는 전통적 胎敎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祖上代代로 이어받는 행동양식과 관행 관습을 존중하고 人倫을 중요시 하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주부들의 胎敎에 대한 認識과 實踐度를 把握하고자 한다. 이는 보

다 바람직한 자녀의 出産과 養育, 그리고 원만한 가정관리를 위한 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을 두고 있다.

2. 研究의 問題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하여 胎敎의 내용을 알아보고 질문지를 통하여 오늘날 농어촌지역 주부들의 胎敎 認識度와 實踐度를 把握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문헌에 나타난 胎敎의 내용은 어떠한가?

2) 胎敎에 대한 일반적 認識度, 영향력, 관심도는 어떠한가?

3) 胎敎내용은 식생활·정서·건강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인식도와 실천도는 어떠한가? 또한 각 영역내에서의 항목별 인식도와 실천도는 어떠한가?

3. 研究의 制限點

1) 胎敎는 임신부 자신 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족,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실천하도록 돕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 자신의 인식과 실천에만 초점을 두었다.

2) 全國의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질문지의 배부와 회수의 편의상 취학자녀를 가진 가정 만으로 제한하였다.

3) 胎敎의 실천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연구방법을 택할 경우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방법이 容易한 질문지법을 택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1. 胎敎의 定義

胎敎는 인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

경적 요인中 특히 출생이전의 胎內환경을 중요시 하는 데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중국의 「大戴禮記」保傳篇에는 胎敎란 “胎속에 있는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 (柳岸津, 1980, 23)이라 하였고 「教育學用語大事典」에는 “임신부가 胎兒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言行을 삼가는 일”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編, 1981, 566)이라 하였다. 坂元正一은 “胎敎란 胎兒의 능력을 충분히 길러주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 (福島普德編, 1977, 138)이라 하였고,申燕植은 “胎兒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서 좋은 영향을 받게 하는 것” (1978, 290)이라 하였다. 柳岸津은 “임부가 胎中の 아기를 인간으로 形成發達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 (1979, 8~9)이라고 하였다.

以上을 고찰한 결과 본 연구자는 胎敎란 孕胎後 부모가 胎兒에게 갖는 모든 관심과 그에 따르는 행동 및 몸가짐을 비롯한 모든 교육적인 노력을 총칭한 것을 뜻하였다.

2. 胎兒의 成長發達과 胎敎

새로운 생명의 출발은 受精으로 부터 시작되며 성숙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변화를 하고 이 변화의 과정을 발달이라고 한다.

H.C.Warren은 個體가 발생 하면서부터 성숙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조와 형태의 변화를 발달이라 하였고(李貞德, 1980, 42), H.L.Holling Worth는 量的인 변화와 더 복잡한 구조의 변화를 발달이라 하였다(장병림, 1981, 35).

새 생명체가 胎內에서 발달하는 동안은 보통 胚卵期(受精에서부터 2주일間), 胚兒期(3주초에서 2개월말까지) 胎兒期(3개월초에서 出産까지)로 구분하고있다(M. Ailmy, 1955, 36)

胚卵期에는 受精卵이 자체 영양으로 세포분열을 시작하여 하나의 세포상태였던 것이 2, 4, 8, 16, 32개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세포의 분열은 日時에 生理的

인 내부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金幸子, 1980, 72).

胚兒期가 되면 胎芽는 자궁벽으로 부터 영양을 섭취하며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이 시기의 성장은 매우 빨라서 신체 각 부분의 95%가 형성되며, 크기도 受精卵의 약 2만 배나 되고 길이는 2.5cm, 무게는 4g 정도 된다(朱貞一, 1981, 66).

발달의 과정은 발생의 초기일수록 비약적 변화가 나타나며 量的 증대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도 변화한다. 따라서 임신부가 섭취하는 정신적 물질적 영양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胎內에서 성장하는 胎兒는 임신부의 영양이 나쁘거나, 정서적 압박감이 길어지거나, 혈액내의 화학적 특질이 결핍되면 갑상선 분비물에 이상이 생겨 신체적으로 異常者가 되거나, 新生兒가 신경질적인 요인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出生시에 지니는 신생아의 특질이 모두 유전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이다.

受精卵은 胚兒가 되는 內部細胞層과 胎兒를 보호하고 영양섭취의 기능을 담당할 外部細胞層으로 나누어져 발달되며, 內部細胞層은 이 시기에 세가지 層으로 分化하면서 胚兒가 되어 그 器管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外胚葉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 치아의 일부, 감각기관, 신경계통을 이루고, 中胚葉은 피부의 眞皮, 근육, 골격, 순환 및 排泄系統의 기관을 이루며 內胚葉은 消化器, 氣管, 肺, 肝, 혀, 甲狀線, 胸線 등을 이루게 된다(金幸子, 1980, 74).

심장은 일찍 발달하여 18일경에는 심장실이 생기고 3주말경에는 심장이 고동하기 시작한다(A. Gesell and H.M. Halverson, 1942). 4주경에는 미세한 동맥이 생기고 피가 통하게 되며, 위장계통의 작용이 생기고 四肢의 자리가 생긴다. 6주경에는 脊柱가 형성된다. 8주경에는 耳目口鼻의 형성이 뚜렷하여 胎芽의 얼굴이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며 각종 臟器와 신경계통도 형성된다.

태줄도 이 시기에 형성되며 태줄을 통하여 母體의 감정이나 기분, 지나친 흥분 등이 母體의 생리변화를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임신부의 情緒의 安定이 특히 요구되며 임신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임신부는 기쁘게 생각하는 임신부 보다 입덧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임신부의 영양실조나 母體의 落傷 등으로 落胎될 가능성이 많이 방사선과 약물의 영향을 받기 쉬운 때이기도 하다.

胎兒期에 이르면 胚兒期에 형성된 器管들이 제대로 발달하게 된다. 胎兒期의 발달적 特徵(金正律, 1981, 58)은 크기의 증가에 있다.

3개월이 되면 남녀의 구별이 생기고 이가 날 자리가 잡히며 4개월이 되면 크기의 변화가 현저하여 키가 출생당시 크기의 절반정도 된다. 머리와 몸에 털이 나고 손발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5개월이 되면 피부가 어른과 비슷해지고 全身에 솜털이 나며 머리털 손톱 발톱등도 생긴다.

6개월에는 눈의 모양이 완전하게 갖추어지고, 혀에는 맛봉오리가 생기며, 7개월에는 胎兒의 신경·근육·순환계통의 조직이 완성된다.

8개월 부터 10개월에 걸쳐서는 발달상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없으며 주로 외계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시기로서 성숙이 절정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음식에 있어서도 질적인 식사보다는 양적으로 많은 식사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구체적 사실들은 바로 胎兒期에 母體의 정신적·신체적 관리에 관계되며 胎兒의 가장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胎敎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3. 胎敎의 내용

胎敎의 내용은 각 시대별·지역별·시기별로 극히 다양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전통사회의 胎敎내용을 중

심으로, 그 내용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식생활관리와 정서관리, 그리고 건강관리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식생활 관리

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더욱 신진대사가 늘어나므로 胎兒發育을 위하여 더 많은 식생활관리가 필요하다.

식생활면에서의 주된 내용은 금기식품, 영양, 소화, 자극성의 회피 등으로 되어 있다.

금기식품에 대한 내용으로는 「天道教經典」(이원호, 1977, 176)에 “脆胎하거든 肉種을 먹지말고 海魚도 먹지말며……무론 아무고기라도 먹으면 그 고기의 기운을 따라 사람이 모질고 악하나니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胎教新記(師朱堂 李氏, 1937, 胎教之法)에는 “……말고기를 먹으면 해산하기 어렵고 엇기름과 마늘을 먹으면 胎를 사하고 비름나물과 모밀 울무는 胎를 떨어뜨리고 개고기를 먹으면 자식이 소리를 못하거나 賤하게 되고 토끼고기는 언청이가 태어나게 하고 방계는 橫産을 하고 닭고기나 알을 참쌀과 함께 먹으면 자식에 寸白蟲이 생기고 오리고기 및 알을 먹으면 자식이 거꾸로 나오고……”라 하여 勸獎食보다는 禁忌食위주의 음식관리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영양면에서는 「胎教新記」에 “……자식이 단정하길 바라면 소콩팥과 보리밥을 먹도록 한다”고 한 것뿐인 것으로 보아 전통사회에서는 별로 영양면을 강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연구결과는 영양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다. Harrell (유안진, 1979, 9)은 “임신부의 영양은 출생한 아기의 지능과 관계가 깊으며, 출생후에 영양을 보충해도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Ebbs(Biehler, Robert F., 1976, 202)는 “임부의 영양이 胎兒의 미성숙, 死産, 流産, 早産, 빈혈병, 저항력 감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Chow등은 “이미취

의 영양불량이 새끼에게 成長不振 운동신경發達의 遲滯, 신진대사의 不振, 학습능력과 탐구심의 低下, 신경과민, 사회적 부적응등을 가져왔다”(朱貞一, 1980, 176, 제인용)고 하였다. 영양부족뿐 아니라 영양과잉도 畸形兒 出産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유안진, 1982, 177), 따라서 임신 중에는 무엇보다 적당량의 영양섭취가 필요함을 주지시키고 있다.

소화면에서는 「胎教新記」에 “빛이 나쁜 것과 실익은 것을 먹지말며 음식이 차가워도 먹지말며 때 아닐 때는 먹지말라”고 한 것을 볼 수 있고, 김석환(1960, 51-52)은 “소화가 잘 안되는 음식, 당분이나 염분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 알콜류와 진한 차도 피하고, 변비의 원인이 될 만한 과일(감)이나 음식,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힘으로써, 각종 독이나 소화불량, 그리고 위에 자극을 주어 소화부담을 주지 않도록 예방적인 측면에서 식생활관리를 강조하였다.

2) 정서 관리

한국의 전통적인 胎教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둔 것은 정서관리이다.

정서관리면은 주로 정서적안정, 자기절제, 정서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서적안정에 관한 것으로는 「규암총서」(憑虛閣 李氏, 1975, 329)에 “…… 지나치게 성내서 기운을 쓰거나 애태우지 말고…… 크게 놀라면 아기가 간질한다”고 되어 있고, 「庶民韓國史」 제 2도에는 “임부가 말이 많거나 놀라거나 겁을 먹거나 곡을 하거나 울어서도 안된다(李圭泰, 1979, 39)고 함으로써 정신적 긴장을 피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최근의 연구결과로 Sontag는 “임신중에 화를 내거나 두려움과 걱정이 심하면 母體內에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되며, 胎內에 산소부족의 원인이 되어 胎兒의 死

亡, 腦畸形兒가 출생되기도 하며, 또한 胎兒가 운동을 심하게 한다”(Whitehurst & Vasta, 1977, 56)고 하였다. 또한 Lakin은 “갓난아기의 배앓이病은 임신부가 신경을 많이 썼거나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에 오래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Mussen, Conger & Kagan, 1969, 85)고 하였다. 이들 문헌에서 공통으로 밝히고 있는 바로는, 임신중에는 불안한 상태가 되기 쉬우므로 임신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적극적인 협조를 힘입은 정서적인 안정 생활을 도모하도록 강조하였다.

자기절제에 관한 내용으로는 「天道敎經典」의 內則속에 “일삭이 되거든 기울어진 자리에 앉지말며, 기울어지게 썩어진 것은 먹지말며 남의 말을 하지말고 기대어 앉지 말고 남의 눈을 속이지말라”(유안진, 1980, 48, 재인용)고 되어 있고, 또한 「胎敎新記」 4장에는 “임부의 말하는 도리는, 순하여도 모진 소리를 말며 말할 때 손짓을 말고 희롱의 말을 말고 몸소 증을 꾸짖지 말라. 꺾숙 말을 하지말며 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傳하지 말며, 일을 당하지 않거든 말을 많이하지 말라”(이원호, 1977, 185-186)고 되어 있다. 이는 새 생명의 탄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극기위주의 胎敎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정서개발에 관한 내용으로는 「小學」에 “옛날에는 부인이 잉태하면……눈으로는 좋지 않은 빛을 보지않으며 귀로는 바르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고 밤에는 소경으로 하여금 詩를 朗誦하며 바른일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朱子, 1973, 12)고 하였고, 「서민한국사」 제 4도에는 “임부는 조용히 앉아 아름다운 말만 하고 들으며 聖賢의 名句를 외우며 詩를 읽거나 붓글씨를 쓰며 禮樂을 들어야 한다. 나쁜 말을 듣지말고 나쁜 일을 보지말며 나쁜 생각을 품지말라” 제 6도에는 “잉태후 석달만에 아기의 기쁨이 형성되므로 높은 犀象, 鸞鳳, 珠玉, 鐘鼓, 名香등을 가가

이 두고 玩賞하며 몸에 지니고 얼굴에 쏘이도록 한다”(李圭泰, 1979, 40)고 함으로써 임신부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胎兒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정서개발에 힘쓰도록 했다.

3 건강 관리

임신중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평소와 다르지 않으나, 특별히 저항력이 약해지고 생리적인 임신상태로 인하여 母體나 胎兒에게 해로울 수가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 모든 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함이 중요하다.

건강관리면에서의 주된 내용은 체력증진과 안전 및 건강관리로 되어 있다.

체력증진에 관한 내용으로서 「규합총서」에는 “孕胎하면 옷을 너무덥게 입지 말고…, 힘에 겨웁게 일하여 쉼을 상하게 말고 많이 자거나 오래 누웠지 말고 때때로 거닐거라…, (愼虛閣 李氏, 1975, 329)고 되어 있으며, 「婦人良方」에서도 胎中の 아기를 보호하는 데는 적당한 운동이 必要하다.”(장세인, 1979, 81)고 함으로써 임신중 체력관리를 적당히 하도록 하였다.

안전 및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으로는 「胎敎新記」에 “높은 변소에 오르지 말며 밤에 문밖에 나가지 말며 바람비에 나가지 말며 산과 들에 가지 말며 높은 데 오르고 깊은 데 가지 말며 험한 곳을 지나지 말고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 수고하고 함써서 지나치게 상하도록 말며……바느질은 반드시 조심스럽게 해서 바늘이 손을 상하게 하지말며 잘 드는 칼을 쓰지말며 바람벽에 기대지말며 기울어진 곳을 오를 때는 서서히 하며 내릴 때는 앉아서 급히 서둘지 말며 뛰어 건너지 말아야 한다”(이원호, 1977, 186-187)고 되어 있다. 「서민한국사」제 1도에는 “產月에 임하여 머리를 감아서는 안되고 높은 마루나 바위위에 올라서서는 안되고 술을 마셔서도 안되고 무거운 짐을 지거나 험한 산길을 오르거나 위태로운 냇물을 건너서는 안

된다”(李圭泰, 1977, 39)고 하여 안전관리에 주의토록 하였다. 또한 김태룡은 “임부가 세탁할 때 엎드려 하는 것은 복부를 압박하므로 早産·流産의 원인이 되며, 간단한 일이라도 장시간 계속하지 말라. 더우기 힘에 겨운 일이나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1973, 100-101)고 함으로써 예방위주의 안전관리를 중요시 하였다.

또한 임신중에는 평소보다 저항력이 약해지므로 부주의로 인하여 질병을 일으키기 쉽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도 점점 악화되기 쉬우므로 특별히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임신중 질병으로 인한 약물의 복용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학자들의 실험결과에서 밝혀졌다. 수면제, 피임약, 마이신, 진정제, 감기약등은 胎兒에게 심한 장애를 주어 畸形兒 발생의 뚜렷한 인자로 작용됨이 알려져 있다.

방사선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쉬우며 풍진등의 바이러스는 雙啞·盲啞·先天性心臟病을 일으키기 쉽다. 그러므로 임신중에는 각별히 평소보다 더욱 주의깊은 건강관리로써, 질병을 얻거나 약물의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胎教로 간주하였다.

III. 研究 方法

1. 조사대상

속초, 강릉, 동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령층을 망라하기 위하여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어머니를 임의 선정하였다. 그중 60세 이상의 어머니는 기억력의 부정확으로 응답자가 적었으므로, 50세 이상에 포함시켰다. 질문지는 500매 배포하였으나 418매가 회수되었으며, 미비한 것을 제외한 328매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는 40대가 47.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0.5%, 50대가 17.1%, 20대가 5.2%로 30·40대의 연령층이 대부분이었다.

학력은 國卒이 37.8%, 高卒이 36.6%, 中卒이 14.3%, 大卒이 11.3%이었다.

월소득은 20만원 미만인 58.2%이며 그중 10~20만원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은 20.7%, 20~30만원은 27.1%, 40만원 이상은 14.7%로서 소득은 낮은 편이었다.

자녀수는 5명 이상이 30.0%, 4명이 29.0%, 3명이 26.5%이고, 2명은 10.7%, 1명은 불과 4.0%로 자녀수는 많은 편이었다. 또한 32.6%가 시부모 또는 친정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2. 측정도구

胎教認識도와 實踐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오늘날 농어촌지역 주부들의 胎教認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면에서의 認知·必要性·影響度등을 조사하였고 구체적 實踐內容을 알기 위하여는 식생활·정서·건강의 3영역으로 포괄 종합하여 각각 10, 12, 10 문항을 두어 모두 3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잘 모른다” “알고 있으나 실천이 어렵다” “알고 있으며 실천한다”의 3개 답 중에 응답자가 선택하여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시된 것중 “알고 있으나 실천이 어렵다”와 “알고 있으며 실천한다”를 합한 것을 인식도라 하였고, “알고 있으며 실천한다”고 응답한 것만을 실천도로 인정하였다.

3. 자료처리

질문지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

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질문지의 타당성과 이해도, 그리고 본조사時 문제의 재기가 예상되는 諸문제를 수정·보완하고자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20명에게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기초로하여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실시한 본조사에서는 해당학교의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취지를 설명한 후 어머니에게 응답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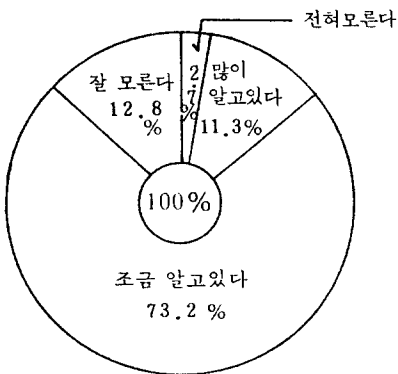
Ⅳ. 結果 및 論議

1. 胎敎의 일반적 認識度

1) 胎敎의 認知

胎敎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금알고 있다”고 응답한 者가 73.2%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른다”가 12.8%, “많이 알고 있다”가 11.3%, “전혀 모른다”가 2.7%로 나타났다. 84.5%에 해당되는 대부분이 胎敎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胎敎의 認知정도



2) 胎敎를 알게 된 경위

胎敎를 어디에서 알게 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친정부모”에게서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시부모”에게서는 20.7%로 나타나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책·잡지·TV·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는 19.2%이었다. 홍혜경(1980)의 연구결과 39.5%가 책·잡지·TV·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된 것과 비교해 볼때 훨씬 적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지역이 도시보다 책과 매스컴의 보급이 많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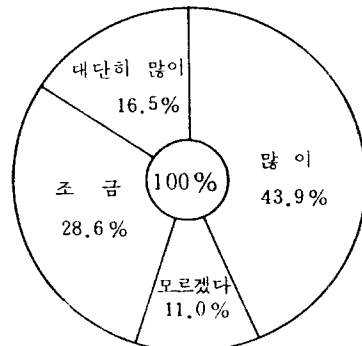
3) 胎敎의 必要性

胎敎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者는 40.3%, “조금”은 40.0%, “대단히 많이”는 17.1%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者는 모두 89.9%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4) 胎敎의 영향

胎敎의 영향에 대하여, 어느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많이”는 43.9%, “대단히 많이”는 16.5%로서 60.4%가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였으며, “조금”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8.6%, “모르겠다”는 11.0%이었다. 홍혜경(1980)의 연구결과 “많이 영향을 준다”

<그림 2> 胎敎의 영향



가 49.2%, “약간의 영향을 준다”는 24.8%, “잘 모르겠다”가 21.4%인 것과 비교해 볼때 농어촌지역의 주부들이 도시지역의 주부보다 胎敎의 영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胎敎에 관심을 가진 시기

“임신된 것을 알고부터”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신 전부터”는 20.1%,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11.0%이었다. 홍혜경(1980)의 연구결과 “임신된 것을 알고부터”가 54.3%, “임신 전부터”가 13.4%인 것과 비교할 때 농어촌지역이 胎敎에 대하여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홍혜경의 연구결과와 지방으로 갈수록 胎敎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6) 胎敎를 실천하지 못한 이유

“생활이 어렵다”가 28.7%로 가장 높으며, “내용을 잘 모른다”는 24.1%, “직업상 곤란하다”와 “시간이 없다”는 똑

같이 15.9%였으며, “관심이 없다”는 15.6%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소득이 높아져야겠으며 또한 胎敎의 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 胎敎의 내용별 認識度와 實踐度

1) 食생활 관리

食생활면의 구체적내용 10 항목중 가장 인식도가 높은 항목은 “먹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먹지 않는다”로 86.9%를 나타냈다. 그 다음이 “충분한 음식의 섭취는 꼭 필요하다”로 83.8%이었으며, 인식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찬 음식을 먹지 않는다”로 66.8%이었다.

가장 실천도가 높은 항목은 “먹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다”로 68.3%이었으며, 그 다음이 “상아래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로 53.0%이었다. 가장 실천도가 낮은 항목은 “찬 음식을 먹지 않는다”로 25.6%이었다.

< 표 1 >

食생활 관리의 인식과 실천

내 용	잘 모른다	알고있으나 실천이 어렵다	알고있으며 실천한다
	N (%)	N (%)	N (%)
먹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다 (개고기, 닭고기, 토끼고기, 오리고기 등)	43 (13.1)	61 (18.6)	224 (68.3)
충분한 음식의 섭취는 꼭 필요하다	53 (16.2)	150 (45.7)	125 (38.1)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골라 먹는다	71 (21.7)	103 (31.4)	154 (46.9)
찬 음식을 먹지 않는다.	109 (33.2)	135 (41.2)	84 (25.6)
덜익은 과일이나 채소를 안 먹는다	58 (17.7)	120 (36.6)	150 (45.7)
당분이 많거나 짠 음식을 될수록 피한다	82 (25.0)	138 (42.1)	108 (32.9)
초상집과 제사음식을 안 먹는다	93 (28.4)	98 (29.9)	137 (41.8)
상아래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	85 (25.9)	69 (21.1)	174 (53.0)
자극성 음식(후추·생강·마늘)을 먹지 않는다	82 (25.0)	128 (39.0)	118 (36.0)
너무 진한 차나 커피등을 마시지 않는다.	75 (22.9)	92 (28.1)	161 (49.0)

항목별 내용으로서 “먹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다(개고기, 닭고기, 토끼고기, 오리고기 등)”는 항목은 86.9%가 알고 있으며, 그 중 실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8.3%로, 인식과 실천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고기, 닭고기, 토끼고기, 오리고기 등을 임신부가 먹으면 類似聯想法에 의하여 外的인 특징을 닮게 된다는 俗說로 옛부터 전해져 오는 것으로서 이것은 특히 시부모나 친정부모로부터 胎敎를 알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충분한 음식의 섭취가 필요하다”는 항목은 82.8%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식도는 상당히 높았으나, 실천도는 38.1%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충분한 식생활의 공급이 어렵고 지역적으로 식품의 종류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이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찬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항목은 인식과 실천도가 모두 낮아 실천도는 25.6%에 불과하였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33.2%나 된다. 이는 특히 농어촌의 지역

적 특성으로 찬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또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조상집과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는 항목은 71.6%가 알고 있으며 41.8%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실천도는 높은 편이었다. 이는 새 생명의 탄생에 부정적인 것이 생길까 하는 염려에서 기인된 것으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 아래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항목은 71.7%가 알고 있으며 53.0%가 실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실천도는 높음을 알 수 있다. 상 아래 떨어진 음식을 먹을 때 불결한 것이 문을 것을 염려한 것으로 이는 위생관념과 생활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 정서관리

구체적 내용 12항목중 가장 인식도가 높은 항목은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이루도록 한다”로 90.5%이었고 그 다음은 “부부 싸움을 하지 않는다”로 88.7%를 나타

<표 2>

정서관리의 인식과 실천

내 용	잘 모른다	알고있으나실천이어렵다	알고있으며실천한다
	N (%)	N (%)	N (%)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이루도록 한다	31 (9.5)	113 (34.5)	184 (56.0)
걱정·근심이나 긴장을 되도록 피한다	46 (14.0)	179 (54.6)	103 (31.4)
편안한 몸가짐과 자세를 갖도록 한다	46 (14.0)	142 (43.3)	140 (42.7)
불이 나는 것과 홍수를 보지 않는다	153 (46.7)	106 (32.3)	69 (21.0)
좋은 것만을 듣고 보도록 노력한다	67 (20.4)	176 (53.7)	85 (25.3)
좋은 책과 예쁜 그림을 본다	82 (25.0)	163 (49.7)	83 (25.3)
모양이 예쁘고 빈듯한 음식을 먹는다	101 (30.8)	160 (48.8)	67 (20.4)
남과 다투거나 남의 눈을 속이지 않는다	43 (13.1)	79 (24.1)	206 (62.8)
남의 흉을 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49 (14.9)	80 (24.4)	199 (60.7)
살아있는 생물을 칼로 베지 않는다	77 (23.5)	77 (23.5)	174 (53.0)
부부 싸움을 하지 않는다	37 (11.3)	144 (43.9)	147 (44.8)
아이들을 꾸짖지 않는다	61 (18.6)	199 (60.7)	68 (20.7)

였다. 가장 인식도가 낮은 항목은 “불이 나는 것과 홍수를 보지 않는다”로 53.3%이었다.

가장 실천도가 높은 항목은 “남과 다투거나 남의 눈을 속이지 않는다”로 62.8%이었으며, 그 다음이 60.7%로 “남의 흉을 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이며,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이루도록 한다”는 56.0%이었다.

실천도가 낮은 항목은 “모양이 예쁘고 반듯한 음식을 먹는다”로서 20.4%이었다.

항목별 내용으로서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이루도록 한다”는 90.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6.0%가 실천한다고 응답하여 인식도와 실천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격정 근심이나 긴장을 되도록 피한다”는 항목은 86.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식도는 높았으나 31.4%만이 실천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실천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가족과 친지들의 협조와 이해가 많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좋은 것만을 듣고 보도록 한다”는 항목은 79.6%가 알고 있으며 29.5%만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실천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좋은 책과 예쁜 그림을 본다”는 항목도 75.0%가 알고 있으나 25.3%만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실천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부의 일손을 특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실천이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남과 다투거나 남의 눈을 속이지 않는다”는 항목은 86.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인식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60.7%가 실천한다고 응답하여 실천도도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의 흉을 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항목도 85.1%의 높은 인식도를 나타냈으며 60.7%의 높은 실천도를 나타냈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가족구조와 순박성으로 인하여 실천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풀이된다. “살아있는 생물을 칼로 베지 않는다”는 항목은 76.5%가 알고 있으며 실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53.0%로 실천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로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아이들을 꾸짖지 않는다”는 항목은 81.4%가 알고 있으며 20.7%만이 실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실천도는 무척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꾸짖게 되는 횟수도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3) 건강관리

건강에 관한 구체적내용중 가장 인식도가 높은 항목은 “약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서만 먹는다”로 88.1%이었으며, 그 다음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안한다”로 85.1%이었다. 인식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적당한 운동을 한다”로 69.5%이었다.

가장 실천도가 높은 항목은 “약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서만 먹는다”로 68.3%이었으며 그 다음은 “먼 여행을 안한다”로 52.1%이었다. 가장 실천도가 낮은 항목은 “건강을 위하여 보약을 먹는다”로 15.0%에 불과하였다.

항목별 내용으로서 “체력관리를 위하여 규칙적 생활을 한다”는 항목은 76.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식도는 낮은 편이었고 실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불과 18.2%로 실천도도 낮게 나타났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는 항목은 76.2%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식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34.7%가 실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실천도도 낮은 편이었다. “적당한 운동을 한다”는 항목은 69.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5.0%만이 실천한다고 응답하여 인식도와 실천도는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신부가 한 가정의 운영자인 주부로서 생활양식과 구조상 자신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 표 3 >

건강관리의 인식과 실천

내 용	잘 모른다 N (%)	알고있으나실 천이어렵다 N (%)	알고있으며실 천한다 N (%)
체력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생활을 한다	92 (28.1)	176 (58.7)	60 (18.2)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78 (23.8)	136 (41.5)	114 (34.7)
적당한 운동을 한다	100 (30.5)	146 (44.5)	82 (25.0)
충분한 영양섭취를 한다	56 (17.1)	164 (50.0)	108 (32.9)
건강을 위하여 보약을 먹는다	70 (21.3)	209 (63.7)	49 (15.0)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안한다	49 (14.9)	185 (56.4)	94 (28.7)
높은 데 오르거나 깊은 데 안 들어간다	56 (17.1)	171 (52.1)	101 (30.8)
먼 여행을 안한다	63 (19.2)	97 (29.6)	169 (52.1)
병원에 가서 정기적 진찰을 받는다	52 (15.9)	203 (61.9)	73 (22.2)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먹는다	39 (11.9)	65 (19.8)	224 (68.3)

시간적·정신적·신체적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안한다”는 항목은 82.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28.7%만이 실천한다고 응답하여 실천도는 낮게 나타났다. “높은 데 오르거나 깊은 데 안들어간다”는 항목은 82.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식도는 높았으나 30.8%만이 실천한다고 응답하여 실천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는 농어촌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부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에 가서 정기적 진찰을 받는다”는 항목은 84.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식도는 높았으나 그중 22.2%만이 실천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실천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으로 병원이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기적 진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5.9%가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계몽교육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먹는다”는 항목은 88.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식도는 높게 나타났고 그중 68.3%가 실천한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실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물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V. 結 論 및 提 言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胎敎에 대한 일반적인 認識度 및 胎敎내용에 대한 認識度와 實踐度를 식생활관리·정서관리·건강관리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胎敎에 대한 일반적 認識度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胎敎를 알고 있는 것(84.5%)으로 나타났으며, 알게된 경위는 주로 친정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44.2%), 시부모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20.7%)도 상당수 있었다.

胎敎의 必要性에 대하여는 대체로 胎敎가

필요하다고 認識하고 있었으며(89.9%), 胎敎의 영향력에 대하여는 胎敎가 胎兒에게 많은 영향을 주거나(60.4%), 조금영향을 준다(28.6%)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胎敎에 관심을 가진 시기는 대체로 임신된 것을 알고부터였으며(55.8%), 임신 전부터 관심을 가진 경우(20.1%)도 상당수 있었다.

2. 胎敎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認識度와 實踐度는 식생활관리·정서관리·건강관리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알아 보았다.

식생활 관리면에서의 인식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천도도 높은 편이었다.

“먹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을 먹지않는다”는 금기식품의 항목이 인식도(86.9%)와 실천도(68.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분한 음식의 섭취는 꼭 필요하다”는 영양항목은 인식도(83.8%)는 높았으나 실천도(38.1%)는 낮았다.

정서 관리면에서의 인식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실천도는 낮은 편이었다. 특히 “좋은 것 만을 듣고 보도록 노력한다”(25.3%), “좋은 책과 예쁜그림을 본다”(25.3%) 등의 정서개발 항목은 실천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남과 다투거나 남의 눈을 속이지 않는다”(62.8%), “남의 흉을 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60.7%) 등의 자기절제 항목은 인식과 실천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건강 관리면에서의 인식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실천도는 낮은 편이었다. 특히 “체력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생활을 한다”(18.2%), “적당한 운동을 한다”(25.0%) 등의 체력증진 항목은 실천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만 먹는다”는 안전 및 건강관리 항목은 인식도(88.1%)와 실천도(68.3%)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인식도는 높으나 실천도는 비교적 낮았다. 또한 금기식품, 자기절제, 안전 및 건강관리등의 소극적인 면에서의 胎敎實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충분한 음식의 섭취, 정서의 개발, 체력증진등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면에서의 胎敎實踐이 잘 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요인은 대체로 경제적인 면, 생활양식, 사회구조적인면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한 문제등으로 풀이되었다.

오늘날까지의 구체적인 胎敎내용에는 과학적인 것과 비과학적인 것이 있고,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있으며 따라서 강조되어야 할 것과 무시해도 좋을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뚜렷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져야 겠으며 또한 시대에 맞도록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胎敎의 實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중심적인 방법의 모색과 사회적 계몽 보급이 있어야겠다. 또한 임신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협조와 이해가 이루어져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胎敎에 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계몽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金錫煥, 助産學, 일조각, 1960.
 金仁模, 유아 영양과 건강지도, 백록출판사, 1982.
 金正律, 아동발달과 교육, 학문사, 1981.
 金泰龍, 모자보건의 실제, 가족계획연구원, 1973.
 金幸子, 아동발달학, 수학사, 1980.
 憑虛閣 李氏(鄭良婉譯), 閨閣叢書, 寶晉齋, 1975.
 師朱堂 李氏(李相寅譯), 胎敎新記, 柳正基소장본, 1937.
 申燕植, 부모교육, 학문사, 1978.

- 柳岸律, 예술의 소우주 ; 어린이를 알자, 배영사, 1979.
- _____,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정민사, 1980.
- _____, 육아론, 문음사, 1982.
- 李圭泰, 한국인의 조건(上), 문음사, 1979.
- 이정덕, 아동학, 수학사, 1980.
- 이원호, 胎敎—胎中보육의 현대적 이해, 박영문고, 157, 박영사, 1977.
- 장병림, 아동심리학, 법문사, 1981.
- 장세인, 천재와 저능아, 사람원, 1979.
- 주정일, 아동발달학, 교문사, 1981.
- 洪惠敬, 한국여성의 胎敎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교육학용어대사전, 배영사, 1981.
- 相島晋德編, “胎敎の考之方,” 新現代木—ム百科事典 10, 九刷, 東京, 學研, 1977.
- A. Gesell and H.M. Haverson, “The Daily Maturation of Infant Behavio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942.
- Biehler, Robert F., Child Development and Instruc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6.
- M. Almy, Child Development, N.Y: Holt, 1955.
- Mussen, Paul H., Conger, John J. & Kagan, Jerome,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3 Edition, N.Y: Harper & Row, 1969.
- Whitehurst, Grover J. and Vasta, Ross, Child Behavior,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7.

Abstract

**Knowledge and Practice of Prenatal Care in the
Rural Districts of Korea
-in Yongdong region**

Lim, Hee Kyu

This is a study to analyze rural area women's perception and practice of prenatal care, which is the fundamental of the education of children. Further, it was aimed to provide basic data for ideal childbirth, upbringing and household management process.

For that object,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women living in Yongdong region to judge the level of general understanding on prenatal care. Research was done from three different aspects; dietary life, emotion control and health management. Percentages were drawn out to see the general tendency.

The following results were discovered from data analysis:

1. Most subjects of the survey knew well about prenatal care. They had acquired that knowledge from their parents. Most thought that prenatal care is necessary. They answered that they think prenatal care has more or less effect on the fetus. The first time they thought about prenatal care was after they found that they were pregnant.
2. The subjects knew well about dietary needs for pregnant women carried out much of what they knew. Intake of sufficiently nutritious food is somewhat difficult, but foods that are regarded as bad were avoided thoroughly. It appears that most women have much concern about what they eat during pregnancy.
3. Most of the subjects understood that the emotional stability is necessary but it wasn't put into practice so well as in dietary life. Especially, attitudes connected with emotional development like, "Look or hear only what is good (for the fetus)" were practised little. Efforts for self-restraint as "Not to hate or pick out others' defects or talk bad about others" were appeared to be great, and it is practised well, too.
4. The subjects were well-informed on health area, but practised little. Behaviors for health improvement as to "Lead a regular daily life for health" or "Not to take a long trip" were practised very faithfully.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passive attitudes related to tabooed food, self-abstinence and cautions for bodily safety were prevalent; more positive and progressive disposition missing. That is, full perception and active practices for caloric intake, emotional improvement and physical strength development are needed.